

<2018년 10월 10일 수요일 새벽, 주 말씀>

1. <사랑>에 대해 알아야 한다. <사랑>을 모르고서는 ‘사랑의 승리’를 할 수 없다.
2. <사랑의 승리>를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. 왜? <하나님 최고의 목적>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이다.
3. <사랑의 승리>를 이루면, ‘만 가지 승리’를 할 수 있다. <사랑의 승리>를 이루면 다른 것은 쉽다는 것이다. 왜? <하나님의 사랑에 승리한 사람들>에게는 하나님이 일생 동안 축복해 주시기 때문이다.
4. <하나님과 주께 속한 사랑의 승리>는 ‘최고 사랑의 승리’다.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, 인간을 창조하신 이래 최고의 목적이 ‘사랑’인데, 이 사랑의 승리가 ‘최고의 승리’라는 것이다. - 이 사랑에 승리를 해야 된다.
5. <사랑의 승리>는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다. <하나님의 때>가 돼야 한다. 과거에는 ‘때’가 안 돼서 할 수 없었다. 그때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, 열 쪽이 나도 할 수 없었던 때다. 이를 비유로 말하면, <어린아이>를 가지고는 사랑을 못 하는 것과 같다. 어린아이가 서로 사랑을 한다고 해서,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는다. 또는 0대 때, 10대 때 그리해도 사랑이라고 할 수도 없고,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다. 그것은 하나의 연애에 불과한 것이지, ‘사랑의 목적’을 이루는 것이 못 된다.

6. <사랑>은 배울 것을 다 배우고, 얻을 것을 다 얻고, 집도 있고 모든 것이 풍부한 가운데 해야지, ‘이성 사랑’ 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. 성장하는 중에는 사랑을 해도 ‘하나의 연애’에 불과하다는 것이다.
7. <연애>와 <결혼>은 다르다. <연애할 때>는 ‘결혼해서 같이 사는 사랑’을 못 한다. 그리고 <연애>는 하다가 쉽게 헤어지기도 하지만, <결혼>은 평생 사랑하면서 사랑을 이루고 살아야 된다.
8. 역사적으로 보면, <구약>은 ‘0대’와 같고, <신약>은 ‘10대’와 같다. 이때는 사랑을 했어도 연애에 불과하고, 형제 사랑에 불과했다. 고로 때가 안 돼서 ‘하나님의 최고 사랑의 목적’을 이룰 수가 없었다.
9. 하나님은 완전히 성장시켜 놓고 사랑하시어 그 목적을 이루신다. 고로 배울 것을 배우고,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갖추고, 언어도 행실도 갖추고, 하나님의 권세까지 받고, 제대로 성장해서 ‘인생 미(美)의 꽃’이 피고, <하나님의 대상이 되는 단계>까지 성장했을 때, 그때서야 하나님은 사랑을 하신다.
10. 사람들은 ‘늦었다. 다 늙었는데 나이 먹고 언제 하지?’ 하지만, 그것이 아니다. <하나님의 사랑>과 <하나님이 하시는 일>은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것이 갖춰진 다음에 하는데, 그때는 늦지도 않고 이르지도 않은 ‘적당한 때, 합당한 때’이다.

11. 선생은 <새 노래>를 두고 ‘이제 시대가 다 가서 언제 노래를 지어서 이들에게 보급하지?’ 했는데, <해>가 뜰 때 해가 뜨고 <달>이 뜰 때 달이 뜨듯이 ‘가장 합당한 때’에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.
12. 선생이 예전에 하나님께 말하기를 “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는 데에는 정말로 시간이 엄청나게 필요하네요. 그러니 제 나이를 더 먹을 때까지 안 죽게 해 주세요.” 했다. 그러니 하나님은 웃으시면서 “내가 생각하는 것이 있다.” 하셨다. 그때 다시 성자께 묻고, 하시는 말씀을 들어 보니, “시간을 아껴라.” 하셨다.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, “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다 늙게 되어 있다. 나이를 먹으면, 계속 일을 못 한다. 그러니 젊었을 때 빨리 뛰어야 된다. 젊었을 때 1시간을 더 뛰면, 늙었을 때 10년 뛰는 것과 같다. <젊었을 때 빨리 뛰는 것>이 ‘오래 사는 것’이다. <시간>을 다뤄라. <분>을 다뤄라. <초>를 다뤄라.” 하셨다. 하나님과 성자께서는 이 철학을 내게 넣어 주셨다. <철장과 같은 생각, 절대적인 생각>이다. 그래서 그 말씀대로 비가 오나, 눈이 오나, 밤이나, 낮이나 계속 뛰었다. 그리고 <새벽 시간>에도 잠을 안 자고 새벽을 잡으니 하루에 1시간, 2시간, 3시간, 4시간씩 더 쓸 수 있었다.
13. <새벽 시간>은 ‘최고로 좋은 시간’이다. 고로 <새벽>에 시간을 쓰고, 그 대신 저녁 9시, 10시, 11시, 12시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제일 피곤한 시간이니, 이때 잠을 잤다. 이 시간은 ‘쓰레기 같은 시간, 아주 쓸모없는 시간’이다. 이때는 피곤해서 일도 못 한다. 그러면서 <시간>을 달려왔다. 고로 성자께서

이 땅에 오신 지 70년 만에, 하나님의 최고 목적을 이뤘다. <하나님의 시간>에 딱 맞춘 것이다. 올해는 복음 역사를 시작한 지 40년이 되는 해다. 공적 역사 40년이 지나면, 다른 세계로 넘어간다. 고로 그 시간까지 맞춰서 ‘하나님의 창조 목적’을 다 이뤄 버렸다.

14. <하나님의 창조 목적>을 이루기 위해서는 ‘신랑’ 뿐 아니라 ‘신부’도 같이 뛰어야 된다. 특히 <핵적인 신부>는 주와 같이 발 맞춰서 뛰어야 된다. 고로 둘이 같이 하면서 강하게 뛰어왔다. 특히 후반기 때부터 가르치면서 뛰게 했다. 가르쳐야 되지, 뛰어야 되지 너무 바빴다. 부지런히 가르치면서 썼다. 그러면서 <따르는 모든 신부들>도 가르치고 쓰면서 역사를 펴왔다. <초>를 다투면서 역사를 펴왔기에 된 것이다.

15. <사랑>을 하는 데 있어서 ‘때’를 맞춰야 된다.

16. <과거>에는 ‘성장기’라서 할 수가 없었다. <성장하기 전에 한 것>은 ‘하나의 연애’에 불과하다. <연애>를 하면 헤어지기도 하지만, <결혼>하면 헤어지기 힘들다.

17. <사랑의 승리>를 해야 모든 것도 축복해 준다. <전체>가 승리한 것이 된다. 고로 <이 시대 사랑의 승리를 한 자>는 ‘전체를 승리한 자’와 같다.

18. <구약과 신약>은 ‘사랑 승리의 역사’가 아니다. 그때는 ‘성장기’였기 때문이다.

19. <사랑의 성공>을 하고, <사랑의 승리>를 하니, 하나님은 다 축복해 주셨다.
20. <사랑에 해당되지 않는 것>이 없다. 전부 ‘사랑’에 해당되는 것이다. 먹는 것도, 입는 것도, 자는 것도, 물질도 모두 ‘사랑’에 해당되는 것이다. <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축복>이다.
21. <구약의 아브라함, 이삭, 야곱>도 ‘구약에 해당되는 사랑의 승리를 한 자들’이다. <그 시대급에 해당되는 사랑의 승리>를 했다.
22. 섭리사는 모두 ‘사랑의 승리’를 하고 역사를 펴 가는 중에 있다. 저마다 자기가 잊어버려서 하나님께 간구하지 못한 것이 많다.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받을 것을 받고, 얻을 것을 얻어야 된다.
23. <사랑의 승리>를 하면, 모든 것도 승리하고 얻는다. 이를 알고 하나님께 간구하고, 찾을 것을 찾고, 얻을 것을 얻어라.
24. <신앙의 잠>을 자면, 못 찾아 먹는다.
25. <신앙의 잠>을 자지 말고 뛰고 달려라.
26. <시대 하와>를 뺏기지 않으니,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우리

가 다 받게 되었다.

27. 부지런히 ‘때’를 아끼면서 뛰고 달려라.

28. 맨 마지막에는 ‘제일 좋은 것’이 있으니, 그것을 차지하려면 초를 다투며 달려야 된다. 그래서 새벽부터 뛰고 달리고, 할 일을 해야 된다. 그러면서 사랑을 누리는 것이다.

29. <운동하는 것>도, <말씀을 전하는 것>도, <아픈 자들의 병을 고쳐 주는 것>도 다 사랑하면서 누리는 것이다. <나무를 심어서 가꾸고 전지를 해 주는 것>도 다 사랑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. <세상 이성 사랑>을 안 했어도 이같이 사랑에 충만해서 산다. 고로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어서 살라는 것이다.

30. <남녀 이성 사랑>은 저 밑에 있는 사랑이다. <하나님 사랑>은 ‘최고’다. 아예 비교할 수 없다. 하늘까지 닿아서 하나님과 같이, 성령님과 같이 동행하며 사는 삶을 살게 된다. <하나님의 실제 사랑의 대상>이 되어 산다.

◎ 오늘도 열심히 뛰고 달리며 하루를 살기 바랍니다.

기도하겠습니다.